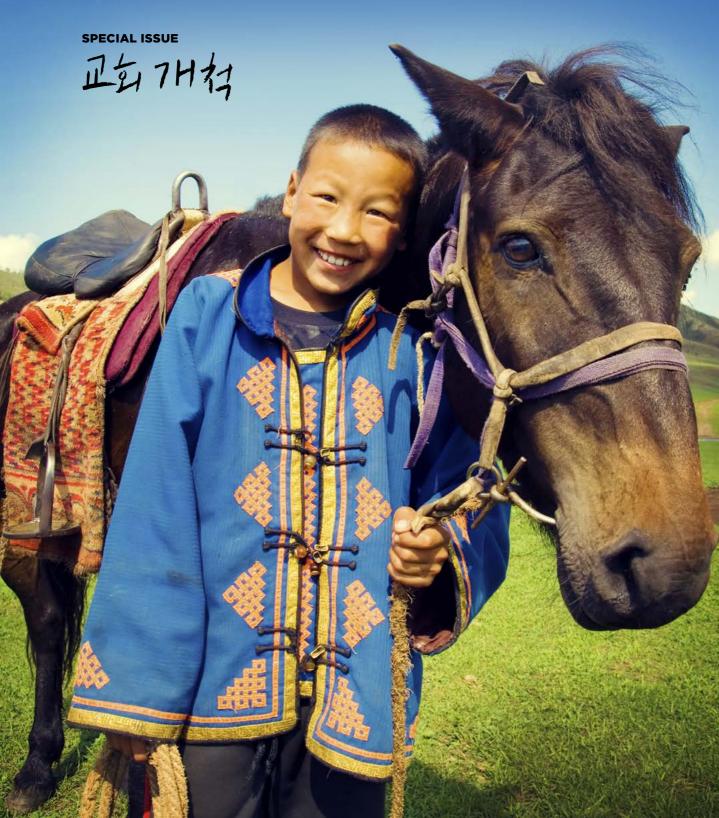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식지

SPRING, 2017 VOL. 13









SPECIAL ISSUE

TIM은 스물 다섯 청년입니다 6 도육환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의 교회개척 비전의 방향성 8 강일영 목사

〈TIM과 IMB의 CPM 협력〉 두란노서원의 에베소 비전 12 김다니엘 선교사

두란노해외선교회의 교회개척배가운동(CPM) 정책과 방향 16 김경민선교사

〈인도네시아교회개척〉 꾸준히 한 길을 가자 21 소리엘 선교사

〈교회개척현장이야기〉 멈출 수 없는 전도의 특권 24 최밀알 선교사



기획 인터뷰

선교사 함선호 장로, 멈출 수 없는 그 길을 걷다 27 인터뷰 함선호 은퇴 장로



열방에서

몽골 교도소에서도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33 강바나바선교사

또 다시 스리랑카 39



본부에서

MK가족들의 사랑의 잔치 45 김세라 선교사

본부소식 47 2017년 주요 일정 48 후원교회(기관) 49 선교사 파송 현황 50



〈통권 제 13호〉 2017년 3월 30일 발행 / 발행인 이재훈 / 편집장 도육환 / 편집인 강일영·제치윤·김동희 / 디자인 인권앤파트너스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전화 (02) 794-1063 / 웹사이트 www.tim.or.kr / 이메일 tim1996@hotmail.com







TIM은 스물 다섯 청년입니다



도육환 목사 TIM 본부장

금년은 두란노해외선교회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막 스물 다섯이 된 청년이라 할 수 있지요.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지만 최상의 건강과 열정을 가진 청년의 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4년의 선교기도모임 이후 잉태된 TIM은 1992년 첫 다섯 가정의 선교사를 허입 함으로 선교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천여명의 장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왔습니다.

TIM이 창립 된 즈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누리교회 위에 임했고, 놀라운 부흥과 함께 2000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 고를 새도 없이 15개의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고 선교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이주자사역과 Love Sonata, CGN TV, Better World 등의 선교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세대의 일원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몸을 던져 헌신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워 해도 좋을 만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물 다섯 준수한 청년 TIM의모습으로 한국교회의 선교 과업과 변화하고 있는 세계선교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시무식



2017 TIM 5대 중점 과제



선교사 역량강화



신임선교사 훈련 강화(멤버십 훈련 기간 2배 및 컨텐츠 강화) 신임선교사 교회개척훈련(with IMB) & 팀빌딩 및 리더십 훈련(with Timothy 프로그램) 선교사 사역능력개발 제도(EZRA PLAN) 리빌딩

현장조직 Innovation



지원시스템 강화



전략팀(ST) 구성 가속화 & 현장 Consultation 교회 개척사업(CPM) 전문 전략팀 구성 및 훈련 현장 팀빌딩 및 리더십 훈련 for 전략팀(ST) 구성 지원 (법인)이사회/운영위원회(이사회) 설립 서포터즈(후원교회 및 후원자) 팀 운영 멤버케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선교동원



융합선교 확대



전략적동원 프로그램(현장의 필요에 의한) FA 및 청년단기 장기전환 증대 방안 마련 Mission Camp

선교모델 개발(비거주&자비량 등) 지속적인 자립형 모델 현장 개발 융합선교 가능 사례발굴 / 대외협력

TIM은 그리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자 생 선교단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비전과 조직운영에 있 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의 부흥과 헌신의 에너지를 자양분으로 삼아 여기까지 성장한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교적 책무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 하고 다변화 되는 선교 현장은 선교사 개인의 성장과 사 역적인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선교에 대한 몽환적 열정만으로는 사역해 나가기 힘들어졌습니 다. 좀 더 성숙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돌파도, 지 속적인 선교의 열매도 맺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 때문에 TIM은 올 해가 새로운 25년을 위한 이노베이 션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재훈 대표께서 강조해 왔 던 선교정책을 하나씩 현장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장에 서는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전략적 팀(ST: Strategic Team)

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 적합하고 다양한 자발적재생산형교회개척(CPM: Church Planting Movement)에 역량을 다하고 한 사람이라 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 다. 또한 자민족 복음화와 자신학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자 양육과 리더십양육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동시에 본부에 서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이사진과 동역자(Supporters) 들을 새롭게 세우고, 뜻을 같이 하는 협력교회와 후원교회 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선교를 전략적으로 정리한 선교자료집 을 발간하고, 여름선교집회인 TIM Mission Camp와 현 장 리더(SC)들과의 집중적인 전략개발회의를 계획하고 있 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헌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함께 예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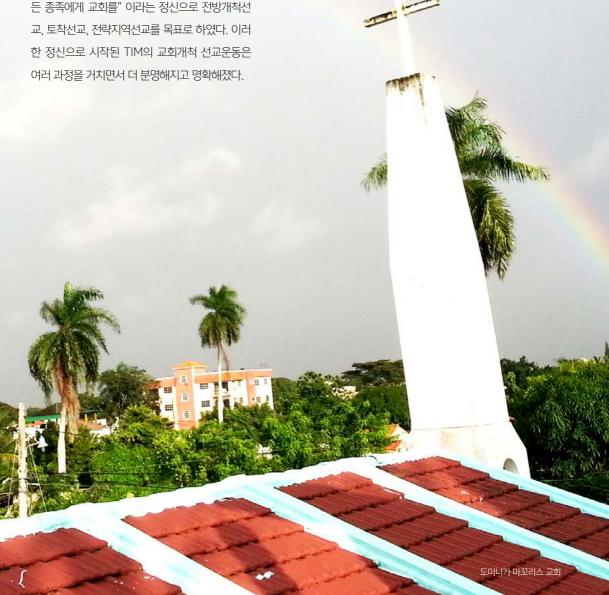
Yim

두란노해외선교회의 교회개척 비전의 방향성

강일영 목사 TIM 총무

2017년은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의 설립 25 주년이 되는 해이다. TIM은 고(故)하용조 목사님 의 선교적 비전 아래 설립되어 현재는, 현장에 446 명의 선교사가 54개국 185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2017년 3월말 기준)

TIM은 설립 초기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 든 종족에게 교회를" 이라는 정신으로 전방개척선



선교지 적용 5P 전략





교회개척의 방향성, 전방개척과 전문인 선교

TIM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교적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한 곳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을 최우선하여 선교사 를 파송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당연히 선교사가 접근하 기 어려운 지역, 비자 발급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 인 선교사를 통한 선교를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현장의 필 요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한 지 역에 본사를 세운 후, 그 전문기술로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 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자연스럽게 지사 형태로 분리 독립시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Tool)로 만드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전문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 장에 체류 신분과 방향 등을 해결하고 그 사역에 맞는, 건물 이 아닌 영혼을 얻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교회개척의 목표인 자립형 토착 선교

전방개척에 맞는 전문인 선교를 파송하여 무형/유형의 교 회를 개척하면서도 TIM이 고민하는 것은 자립형 토착 교 회를 세워야하는 부분이다. 토착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회심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예배이다.

이를 위해서 TIM선교사들에게는 선교지 적용 5P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5P전략"은 ① 개척(Pioneer) ② 부모 (Parent) ③ 동역자(Partner) ④ 참여(Participation) ⑤ 떠남 (Parting)의 큰 틀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떠날 것(현지 이양)을 염두에 두고, 제자훈련과 리더십 훈련을 병 행해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된 현지 지도자들이 주도 하는 자립형 교회가 되어야만 토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TIM은 전방개척지역에 작은 교회 형태의 교회개 척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형태의 교회는 건물과 유 급사역자를 필수로 하기에 가급적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 을 통해 장소나 건물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 는 공동체가 되어, 창의적이며 토착적이고 관계를 중심으 로 여기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관계 중심의 교회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리더십을 어떻게 훈련하고 세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TIM이 전방개척과 토착선교에 집중한다고 해서 대 형교회나 건물이 있는 교회를 부인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는 대형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이므로 선교현장도 필요에 따른 건물교회나 전문화된 목회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IM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장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효과적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보편적으로 가정교회와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중점이 있음을 이야기 하다.



교회개척의 연속성을 위한 TEAM사역

전방개척과 토착선교의 모델을 위해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교회개척의 시간이 모든 선교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교적으로 열려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짧은 몇 년 사이에도 가시적인 교회와 양육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타종교 지역들은 세계관을 바꾸고, 현지 종교 공동체에서 변화를 가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선교사 한 가정이 들어가서 혼자 좌충우 돌하다가 개인적인 문제(예를 들면 건강, 자녀 교육, 또는 비자 거절 등)가 발생하면 그동안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했던 사 역을 내려놓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 사역지는 다시 복 음이 없는 지역으로 돌아가 선교사가 피땀 흘려 이룩해 놓았던 작은 싹 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TIM이 지난 25년 동안 사역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였으나, 이렇게 효과 없이 무너져 버린 지역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TIM은 강력하게 전략적 팀 (Strategy Team)사역을 지향하고 있다. 그 일을 선교현장과 계속 논의하며, 개별사역을 팀사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선교사는 팀(Team)사역이 안 된다고 한다. 그만큼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역이 복음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팀사역은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비자를 10년 이상 받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현장 선교사가 전방개척 지역에서 학생비자나 문화비자 또는 사업비자도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이윤 창출로 고용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류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시작된 사역이, 동역하는 선교사를 통해서라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팀(Team)사역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지 교회의 모습

복음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팀사역은 필수 조건





교회개척을 돕기 위한 CPM과 자기개발(에즈라플랜)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잘 실행하기 위한 교회개척을 위해 본부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선교사들을 돕기 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 중에 2개의 프로그램이다. 교회개척운동(CPM)과 선교사의 자기개발을 요구하는 에즈라 플랜이다.

현재 TIM은 다양한 방법과 현장에 맞는 교회개척을 인정한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며 많은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진행하는 교회개척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격려하고 세우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에게 선교지 파송 전 한국에서의 교회개척 경험이 없거나 선교지 교회 개척의 실제적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남침례선교부에서 사용하는 교회개척 프로그램을 선교사들이 경험토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교회개척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 약 2~3개월간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 훈련을 하며, 직접적인 세례와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것이 자신의 지역에서 다양한 응용을 통해 교회가 개 척되는 것을 경험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가 첫 5년을 마치고 본국사역으로 돌아오면, 본부는 선교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교회개척을 위해 필수적인지를 확인하고 고민하며, 선교사가 자신을 개발하고 세워갈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본부와 현장이 노력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본부와 현장의 고민과 노력이 하나가 되어 주님 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현지에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전과 꿈을 TIM의 모든 선교사와 함께 꿈꾸고 있다.



TIM과 IMB의 CPM협력

두란노서원의 에베소 비전

<mark>김다니엘 선교사</mark> IMB:미국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 동아시아 지역국

저는 미국남침례교단(이하 IMB)의 동아시아 지역국(East Asia Affinity) 전략 훈련팀의 김다니엘 선교사입니다. 지난 3년동안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TIM선교사님들을 훈련으로 섬기며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개척 배가의 본질과 TIM과 IMB의 협력 방안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은 1845 년, 세계선교에 뜻을 같이한 교회들이 협력 선교를 목적으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미국 남침례교단은 처음부터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고, 현재 까지 미국의 5만개의 남침례교회가 협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미국 남침례 국제선교부로 17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IMB의 비전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도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사명문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현지인에 의해 재생산하는 토착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지난 150여 년간 온 갖 전략을 총동원하여 세계 선교를 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많은 갈등으로 인해 선교 전략에 한계를 느끼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성경적인 선교로 돌아가야한다는 "선교의 재혁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에투자하던 선교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현지인에 의해 재생산 하는 토착교회개척"을 세우는 선교전략으로의 대전환을 하였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선교시대인 현재, 하나님나라 완성을 위한 지름길은 사망권세를 이길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마16:18). 그래서 교회개척은 선교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선교지가 창의적 접근지역이고, 또한 선교지의 도입단계 전략으로 구제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와 유치원을 세우고, 의료사

12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Tim**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현지인에 의해 재생산하는 토착화 교회를 세우는 것





TIM과 IMB의 MOU 협정식

역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이 시대 선교에 꼭 필요한 것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현지인을 세워 현지인에 의한 재생산하는 건강 한 교회개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나라 (Kingdom of God)의 완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하나님나라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핵심 전략은 공생애 3년 반의 사역 기간 중, 3분의 2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여 현지인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며 제자의 연속적 재생산을 명령하셨습니다(마28:19-20).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으로 복음은 초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개척 배가운동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도 하나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전은 한 교회의 부흥발전이 아니라, 한 도시나 종족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가는 곳마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재생산하도록 돕고 영적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떠났습니다(됨후 2:2). 바울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회당에서 3개월간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때 어떤 이들은 그 도를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화의 사람들을 찾아 두란노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를 세움으로써, 그 제자들을 통해 2년만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행 19:8-10).



토착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역과 종족을 연구하여 그 지역과 종족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비성경적인 건물 교회관과 제자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교지에 재생산이 가능한 첫 번째 건강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토착교회를 세우기위해 선교사는 지역과 종족을 연구하여 그 지역과 종족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건물 교회관과 제자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재생산하는 도입 단계, 전도 단계, 양육 단계, 교회개척 단계, 지도자양육 단계를 통해 현지 지도자가 세워지면, 선교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가진 현지인에 의해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의 한 텀(one-term)을 사역하시면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신 것처럼, 많은 선교지의 정세가급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선교 초기부터 떠날 계획(Exit plan)을세우고 더 나아가 한 텀 안에 교회개척 후 떠나는 전략(one-term urgency strategy)을 통해, 현지인에 의한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TIM 선교사들이 'Acts 29' 비전에 맞추어 전략팀 (Strategy Team)들을 중심으로 같은 비전, 같은 전략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팀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 간의 하나 됨은 팀사역에 생명과 같습니다. 각 전략팀원들은 도입, 전도. 양육. 교회개척. 지도자 양육의 각 5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

15

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며 팀의 협력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행8:4). 먼저, 전략 팀원들 모두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개척 배가의 돌파가일어나서 모든 지역과 민족 가운데 전도하여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재생산하는 교회개척을 통해하나님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TIM 선교사들의 교회개척 성공사례가 나오고 TIM에 제일 적합한 모델의 전략과 훈련을 자체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종하는 전략팀을 중심으로 멘토링과 코칭의 후속 훈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본부와 계속 상호책임관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하나 남나라의 완성이라는 "남은 과업"(FTT: Finishing The Task)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남은 과업"은 한 교회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

닙니다. 따라서 IMB는 최근 'IMB Connecting'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TIM과 같은 하나님나라 비전을 가진 파트너(GCC: Great Commission Community)들과 협력하여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GCC협력뿐만 아니라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때 남은 과업은 속히 이루어 잘 것입니다.

최근 『래디컬』의 저자로 잘 알려진 David Plattol IMB 의 총재가 되면서, 지난해 full-time 선교사를 1,000여명 감축하며 변화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 특히 4대도시인 상해, 런던, 두바이,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이미 그곳에 가있는 전문인, 퇴직자, 비즈니스맨,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교훈련을 제공함으로써 full-time 선교사와 한 팀이되어 교회개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가 많이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같은 비전으로 협력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협력하는 IMB와 TIM

교회개척은 성령의 일입니다. 바욱이 성령 충만으로 순족하여

바울이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여 두란노서원의 에베소의 비전을 펼쳤던 것처럼, TIM과 IMB의 협력을 통해 'Acts 29'의 온누리 비전이 온누리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두란노해외선교회의 교회개척배가운동(CPM) 정책과 방향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는 '전방개척선교'와 '교회개 척'을 주요 선교정책으로 하여 올해로 25주년이 되어 달 려오고 있다. 명확한 '선교지에서의 교회론/교회개척 방 법론'에 대한 그림이 없이 교회개척을 시도하는 선교사들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전방지역의 특성상 그렇 지 않은 지역에 비해 복음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심하여 교회개척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신임 TIMer들이 거치게 되는 온누리장기선교사훈련과 정(OSOM)에서도 선교지 교회개척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과정이 부재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훈련 없이 현장 에서의 교회개척은 막연한 목표와 같아 보일 때도 많았다. 이에 TIM은 선교 현장의 교회개척 지원을 위해 미국남침 례교단(이하 IMB)의 교회개척배가운동(이하 CPM) 방법론을 차용하여 TIM의 교회개척방법론으로 정책적인 채택을 하 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교회개척을 목표로 하는 TIMer들을 위해 그 '표준방법론'과 같은 CPM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 으로써,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의 제식훈련처럼 신임선교 사현장훈련(TFO: TIM Field Operation)을 시작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국내 이주민 집중 거주지역(안산)에서 이루어지는 TFO 전도 훈련



(Church Planting M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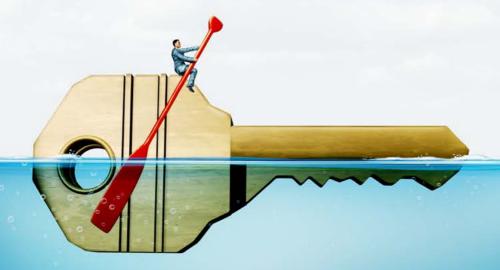
교회개척배가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s)이란, '한 종족이나 지역전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토착교회가급속히 퍼져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1 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데다음과 같다.

1) 참조: David Garrison, "CPM: How God is Redeeming a Lost World (2004)." 첫 번째, 급속한 증식이다. CPM은 '빠르게 증식'한다. 아주 단기간에 새롭게 개척된 교회는 곧바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된다. 2세대 교회 또한 급속한 재생산이라는 동일한 유형을 따른다.

두 번째, 토착적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자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평화의 사람)에서 발원 되는 것에 그 주요한 특징이 있다. 물론 맨처음 개척되는 첫 번째 교회는 외부자(선교사)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추진력은 매우 빠르게 외부에서 내부자에게로 옮겨지며, 매우 단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때문에 새신자들은 이 사역에 외부인(선교사)이 관여 했다는 사실 조차 모른다. 이는 전방개척 선교에 좋은 모델이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진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더 나이가 새로운 교회들이 또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된다. 새로운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증손녀교회에 서 생기는 교회에 어머니교회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진정한 CPM을 통해 일어난 교회들이 다른 교회로 다시 또 다른 교회로 생명이 배가되어 만들어 져갈 때, 어느 정도 통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많은 유사한 형태의 교회개척배가운동은 교회개척자가 재생산되는 교회를 통제하려하기 때문에 '화산폭발'이 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재생산되는 교회의 힘이 통제하려는 개척자의 능력을 넘어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운동(Movement)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종족 집단이나 서로 연관된 지리적 또는 행정 구역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언어와 인종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 복음이 집단을 변화시킨다면, 이들은 이 메시지를 다른 종족 집단에 전달하게 된다.







TIMer들은 CPM을 시행할 때 외부자(선교사)의 자리에서 역할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종 쪽 또는 CPM의 대상그룹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외부자는 점차 뒤로 물러나고 새신자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추수꾼 또는 평화의 사람)가 되며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복음에 대한 저항이 높은 전방개척지에서 좋은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찾는 일은 요원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사람이 평화의 사람인지 나를 공격할 사람인지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개척자와 선교사, 내부자와 외부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배가를 둔화 시키고 멈추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기초훈련 이후, 교회개척(CPM)에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을 모아 일 년에 한 번씩 각 사역지에서의 시행착오와 여러 사례들을 비교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TFO훈련의
가장 큰 주안점
복음전달자로서
거절감과 두려움
극복하는 것

신임선교사 현장훈련(TFO)을 통한 CPM훈련

2013년 터키전략회의 때 처음으로 CPM훈련을 시작한 이후, 2016년 신임선교사 15명을 포함한 TIM의 모든 현장 선교사들이 CPM훈련을 받았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7명의 TIM신임선교사들이 이 훈련을 받게 되며, 안산 M센터 사역자와 M선교사(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도 훈련을 받을 계획이다.

TIM 신임선교사들에게는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 CPM 교육과 실습의 한 일환으로 국내 이주민 집중 거주지역인 안산에서 현장훈련(TFO: Tim Field Operation)을 하고 있다. 2016년에 진행된 훈련과정 기준으로 설명하면, TIM의 선교정책과 지역전략, 사역계획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진 한 달간의 TST(TIM Sprits Training)를 진행 후에 2주간 '팀 빌딩과 리더십 훈련' 그리고 'CPM 훈련'이 진행되었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과 화성 그리고 발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CPM 실습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거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다. 둘째, 교과서적 CPM방법론의 반복 숙달을 통해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선교지라면 약 1년간 진행될 과정을 파송 전 2~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빠르고 강하게 진행된다. 셋째,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고 몸에 새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현장 리서치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 본부의 훈련담당자와 함께 진행되었다. 약 2개월(2016년 8~9월)의기간 동안 14명의 훈련생들이 피와 땀으로 달린 결과, 1) CPM원리와 방법론을 따라 복음을 전한 인원 1,357명 2)영접자 481명 3)333예배의 그룹9개, 4)세례자 23명의 결과를 이루었다. 이는 복음에 배타적인 선교현장의 상황을생각해보면 실제는 많이 다르겠지만, 훈련으로써는 매우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2) 333예배는 교회개척배가운동(CPM) or T4T(Traingnig for Trainers)에서 모임 때마다 진행하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 훈련과정으로, 1.목회적돌봄,예배,상 호책임보고 2.새로운 공부(목표과제) 학습 3.훈련내용 실습, 목표설정과 기도 등 으로 구성된다.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ㅜim**





TFO7기의 전도하는 모습

'영혼구원'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싸움

의지가 있는데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거나,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CPM을 통한 교회개척을 우선순위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2017년 교회개척(CPM) 인텐시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하는 선교사들의 지역특성에 따라 IMB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함께 와서 교제하고 현장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당당하게 나누고 영혼구원의 갈급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연 1회 이상 모이는 교회개척 전략팀(ST) 구성에 대한 시도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하여 TIM내 다양한 CPM 사례발표와 현장견학, IMB사역자와의 교류 확대 등 교회개척의 추진동력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CPM을 잘 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이 전략팀(ST) 제도이며, 개별사역에서 팀사역으로의 전환 시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본부에서는 팀빌딩 스킬과 리더십 훈련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TIM 교회개척(CPM)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먼저는 IMB의 CPM방법론을 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최소 1~3년을 진행한뒤에 그 노하우(Know-how)와 새로운 응용들이 생긴다면, 그것을서로 나누며한국형 CPM 또는 TIM교회개척방법론(CPM)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TFO 7기 훈련을마치고 선교지로 파송된 체기 선교사의 CPM 훈련 소감을 나누며이글을마친다.



TFO 7기 사역보고서



ISSUE

훈련의 열매를 안고서 나아갑니다.

체기 선교사

나에게 TFO훈련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 중의 하나였다. 8년 전 온누리장기선교사훈련(OSOM)을 받았으나 훈련 당시 아이를 가지게 됨으로써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잠시 미루었고, 그 후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그동안 나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에 적응하였지만 다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간 마음가짐으로 안산에서의 TFO훈련을 통한 CPM 전도사역을 시작하기로 다짐하였다.

내가 담대하면 상대방도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오는 거절감으로 인해 처음에 는 정신이 아찔해옴과 동시에 내 마음 속에 경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진정 네가 선교지로 가길 원하느냐?"라고 주 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다. 사실 난 그때 바로 "네, 그렇습 니다. 제가 가길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였다. 선교 지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절감과 위기감 그리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에 다시 한 번 나 자신 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느 꼈다. 그리고 한동안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소극적이 되어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전전긍긍하며 소심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을 보 았다. 그러던 어느날 디브리핑 시간에 동료 선교사님의 담 대하고 확신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야 하는가,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이고 사명을 받은 선교사인데 두려 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CPM 전도의 열매로 이어진 세례

그 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 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말씀을 주시며 나와 함 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 사역이 되었다. 내가 두려 워하면 상대방도 그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내가 담대하면 상대방도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

또한 팀(team) 사역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동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자신감의 상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 훈련을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신감과 담대함 그리고동역이라는 귀한 열매를 안고 나아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교회개척

꾸준히 한 길을 가자

소리엘 선교사 인도네시아 B베이스 코디네이터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교회개척 운동'(이하 CPM)을 사용하고 있다. 이 CPM은 매우 공격적인 전도방법이다. 그 근간이 되는 T4T(Training for Tainers)는 성장해야 분할하는 셸(cell) 교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회심한 각 개체가 즉각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추구한다. 무슬림 전도를 위해 '상황화(Contextualization)'1) 를 공부하고 있었던 나는, 이런 방법이 이슬람권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A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CPM 훈련을 하는 한 단체가 들어와 단기간 훈련과 전도를 진행하다 일대 혼란을 일으킨적이 있었다. 그 후폭풍으로 그동안 문제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9개의 무허가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다. 그나마 A 종족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3개의 타종 족교회 리더들마저도, 그 일을 계기로 외부인(선교사)들에게 마음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 여전히 그 일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나, 지금은 오히려 CPM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1) 상황화사역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성경적 성육신 원리에 입각하여 선교적 돌파가 어려운 무슬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무슬림 사회 의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사역으로, 현재 이슬 람 선교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기도하는 B베이스 지역의 무슬림들

B베이스는 선임 선교사에 의해 '상황화'를 근간으로 세워진 베이스다.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B베이스 안에는 CPM만을 지향하는 사역자들이 여럿 있으며, 오히려 그 특성을 살려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보다 이곳에 먼저 들어와 CPM을 바탕으로 사역하고 있는 미국남침례교단(이하 IMB)측과도 긴밀한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IMB는 우리보다 더 많은 CPM사역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IMB쪽에 B베이스 사역자를 보내 훈련을 받기도 하고, IMB의 사역자를 우리가지원하기도 한다. CPM 훈련과 CPM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역평가회 때에는 IMB의 사역자가 직접 B베이스 사역자 그룹을 인도하기도 한다. 이런 협업을 통해 B베이스 안의 CPM팀은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있고, 지난 2년간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B베이스 안의 모든 팀이 CPM을 근간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팀은 CPM과는 전혀 다른 상황화 사역을 지향한다. 또 다른 한 팀은 또 다른 색깔, 다른

방법론(ABM: A Better Messenger²)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한 베이스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역팀을 운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역자들의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CPM 의 장점과 잘 어울리는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B베이스 사역자들 가운데 무슬림 출신이면서도 CPM 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CPM에 맞게 잘 훈련된 사람을 굳이 상황화팀으로 유도할 필요가 없으며, 사역자가 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지만, 방법론이 모든 것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역자의 눈물과 열정이 무슬림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다.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 열매는 장기사역자보다 언어도 잘 못하고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FA(Frontier Agency) 단기선교사들에 의한 것이었다. 눈물로 전하다 보니 상대 무슬림이 결국 성경을 읽게 되었던 것이다.

2) ABM은 'A Better Messenger'의 약자로, 무슬림을 위해 '보다 나은 메신저'가 되자는 뜻이다. '전도자'라는 말보다 '메신저(Messenger)'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ABM이 무슬림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에 보다 초점을 두기 때문이며, 누구나 메신저(전도자)가 될 수 있음에도 'Better Messenger'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메신저가 단순 히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피전도자, 즉 무슬림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이 무슬림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먼저 그들과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복음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무슬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게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ABM은 일정한 상황화 이론과 무슬림 선교에 필요한 성경해석에 대한 적합한 관점, 그리고 무슬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전도방법'이란 사역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취사 선택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복음전도의 본질은 '메시지' 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다양 한 방법론들이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이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담은 대화, 즉 메시지'를 통해 무슬림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 러므로 전도의 핵심은 메시지에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방 법론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즉 메시 지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 일뿐, '메시 지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3) FA는 Frontier Agency movement의 약자로, 온누리교회에 청년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세워진 대학청년 단기선교 사역(3주간 훈련/5개월 현장사역)이다. 이를 위해 전방개척 지역에서 현지어와 문화를 배우고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른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복음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다

복음은 전달자가 무슬림들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외적인 문화만을 수용하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른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복음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다. 이는 겉은 노란데 결국 하얀 속이 드러나는 바나나와 같기 때문이다. 바나나와 같은 사역은 복음에 대한 저항만 더 키울 수 있다. 속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적합한(Appropriate) 신학에 근거해 노란색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곳의 CPM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늘 새롭게 다듬을 것을 강조한다. 사역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계를 경험하다보면, 현장에서 만나는 무슬림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다듬으려하기 보다 또 다른 방법론을 찾아가려는 경향을 자주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지 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곳, B베이스의 CPM팀은 온누리교회가 입앙한 L종족 가운데 하나인 K종족을 섬기고 있다. K종족의 모든 마을 안에 자립 가능하고 전도가 가능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비전을 같이 암송한다. 오직 그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고자 다짐하기 위해서다. 이 팀 안에는 한국 나이로 예순이되신 아주머니도 계신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 분을 통해 우리의 희망을 본다.



교회개척현장 이야기

멈출 수 없는 전도의 특권

최밀알 선교사 B국 저는 현재 중동지역의 B국에서 제자양육 보다는 개인전도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대형 쇼핑몰에서 전도하는 방법과 하치하이킹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몰에서 전도하는 방식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의 경우에는 예멘, 사우디, 리비아, 카타르, 오만 등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한자리에서 만나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깊이 나누기 어렵고 시간의 제약을 많이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치하이킹의 경우에는 일대일로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의 집까지 방문해 복음을조금 더 깊이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노출 등의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하면서 만난 B국 사람들



최근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대형쇼핑몰의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지하1층부터 1층, 2층, 3층 등 층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저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하나는 아랍어 단어나 광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서 접근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방식이 경건한 무슬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적극적으로마음을 열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물으며 전도

를 하곤 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날은 두 번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지하1층부터 시작해 2층까지 이 방법을 통해 접촉하고 전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3층에 올라와 전도를 하려고 사람을 물색(?) 하는데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휴대폰의 한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도를 하다가 만난 한 무슬림 친구가 저를 개종시키려고 보내온 문자인데, "무슬림 신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입니다. 저는 무슬림 친구가보내온 이 문자를 이용하여 "내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내가 아랍어를 잘 몰라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무슬림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웃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휴대폰의 이 문장을 본 그 현지인이 갑 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급하게 하면서 친구들이 오니까 조 금만 기다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다 른 반응에 제가 긴장을 하고 자리를 떠났으면 괜찮은데 복 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제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서, "무슬림 신자가 되 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라는 문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 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겠 다고 하고 나오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 차 휴대폰을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 서 "내가 왜 휴대폰을 보여줘야 하냐?"라며 거부하고 돌아 서는데, 제 팔을 잡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들은 사 복경찰이라고 하면서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해서 구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전 화를 걸더니 제 이름과 신분증, 그리고 연락처까지 받아가 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 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더 있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허무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 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전화가 도청이 될 텐데 전화번호 를 바꿔야 하나? 오늘 괜히 이곳에 전도하러 왔네..."

"이제 이 나라에 더 있을 수 없는 건가?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기도할 수 밖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나누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차츰 안정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IS'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때에 K라는 동네에 'IS'가 테러를 일으켜 1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국 정부는 그때부터 'IS'를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고, 특별히 자국민이 'IS'에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사건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외국인이 이슬람에 대해 물어보니, 혹시 'IS'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





하나님은 결국 예비한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귀한 복음을 나누게 하신다

치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비자 발급기간이 되어 걱정을 많이 하며 비자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비자가 잘 나왔습니다. 이러한일이 있고 나서 대형쇼핑몰에서의 전도는 당분간 자제를하게 되었습니다.

히치하이킹으로 전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 하게 되는데, 전도하다가 휴대폰을 도난 당하기도 하고, 어 떤 집을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 동성애자의 집을 방문한 적도 있고,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이 내렸는데 그때 경찰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2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도 한명도 자동차를 안타는 상황도 있고, 차 를 태워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차 비가 없다고 하면서 차비를 요구 하는 사람도 많아서 차비 까지 주면서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결국 예비한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귀한 복음을 나 누게 하십니다. 2주 전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오는 길에 시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 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 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라 며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간단합 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이야 기를 듣는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예수는 사람이며, 죽지 않았고,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알라)만이 한다."며 반발을 합니다. 그날도 당연히 거부하고 반발할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 전도자인 제자신이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무슬림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이끌어 그분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분은 사람과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선교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특권은 위대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가지는 게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 분의 명령에 따르기만 한다면,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1:21





27



2017년 기획 인터뷰 선교하는 장로 ①

글 김동희 간사_TIM 본부 인터뷰 함선호 은퇴 장로 (은퇴 선교사)

선교사 함선호 장로, 멈출 수 없는 그 길을 걷다

지난 2006년, 60세의 나이에 온누리장기선교사훈련(OSOM)을 받고 연이어 온누리교회 장로 장립, 2007년 4월에 온누리교회 1000호 선교사로 파송되어 2013년에 추방되기까지 C국 선교 사로 사역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훈 련팀에서 사역중인 장로(선교사)가 있다. 작년 은퇴 연령인 70세 가 되어 '장로' 그리고 '선교사'라는 두 개의 명찰을 동시에 떼었 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함선호 은퇴 장 로(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열방에 교회를 ۲im



기 획 인터뷰



장로장립을 받고서



장로님에게 장로라는 직분의 의미와 선교란 무엇인가요?

저는 환갑의 나이에 장로 장립하자마자 선교사로 파송 받아 나갔기 때문에 장로하면 선교사, 선교사 하면 장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직분이 저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저의 장로 사역은 선교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하 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직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는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신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껴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암 투병과 수 술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의 의미 와 엑기 스가 바로 선교입니다.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결단하게 되셨나요?



기 : 인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 간경화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되며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의 욕심과 자기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엄마 품에 파묻혀서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충동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그 사랑의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인 줄 알았던 제가 환갑의 나이를 계기로 하여, '이후의 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내와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연이어 장로 장립을 받은 그이듬해에 부부가 함께 C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Q

선교지에서 암 투병을 두 번이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선교지에 가기 전 6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지난 삶을 통해 인생은 창조주의 손에 달렸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으로 끓어오르는 마음에 선교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휴가기간이 되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을 절제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삶을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살리고자하시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2주 만에 선교지로 돌아가 사역에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



열방에 교회를

29

^{세우는} Ƴim 기 획 인터뷰 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한 번의 전립선암이 찾아 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 분과의 깊은 대화 속에 알아갔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손길을 느끼며 후유증 없이 회복하게 되었고,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암투병과 수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정말 많은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지 정부로부터의 소송을 두 번이나 하게 되었는데요.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이어진 그간의 여러 비즈니스 사역들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소송, 그리고 베이스의 농장을 빼앗기위해 토지사용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며, 결국은 불합리한 추방을 당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선교사로 살아 온 지난 10년은 70년 나의 인생에 엑기스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긴 것인데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도있었지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느끼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소감과 은퇴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작년 말에 교회로부터 장로 은퇴식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까지 청춘의 마음으로 달려온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70대의 나이가 되었는데 40~50대의 마음으로 살다보면, 자신은 좋으나 주위 사람들은 피곤해지지요. 그래서 은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나이에 맞게 처신하며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은퇴식이 있기 며칠 전, 어떤 장로님이 얇은 책자를 주면서 함 장로는 지난 10년간 장립할 때 서약한 그대로 살았는지 자신이 직접 평가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난스럽게 "당신이나 돌아보지 왜 남까지 배려하느냐?" 하며 받아보니, 2006년도 장로 장립 시에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장로들의 서약이 담긴 책자였습니다. 그당시에 내가 적은 내용들을 살펴보며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는 너를 지켜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60세에 시작한 선교 헌신이 70의 나이에 한 획을 그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항해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곳 비전빌리지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훈련을 계속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지난 삶을 통해 인생의의미와 고통을 알게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사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서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던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함께하고 동역하는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ACTS29비전빌리지 훈련사역







선교사 은퇴식



후배 선교사들과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요.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 집사님들을 세워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터치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피부로 느끼고 싶다면, 선교지에 마음을 쓰고 선교사들을 케어했으면 합니다. 겪어본 사람들만이 안다고 하 쟎아요.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그 참맛,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귀한 맛(?)을 장로님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후배 선교사들에게는 팀(team)사역을 하면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히 서로를 인정함 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맛(?)을 더 깊이 맛보는 후배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_막16:15.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꿀수있다

젊은이만이 또는 선교사만이 온 천하 만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 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장로라는 직분 에도 교회 섬김을 뒤로하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또한 은퇴 나이가 되어도 이 일을 멈출 수 없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한 약속과 명령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증 언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써, 나누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이 31

교회를 ጉነጠ



인터뷰







A. 아내와 함께 농장작업 B. 선교지 방문 사역

C. 베이스 농장의 옥수수 수확

사명감과 책임의 무게가 덜어지지 않기에 그 가던 길에서 멈춰 설 수 없는 그 귀한 마음을 함선호 장로님과의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 었다. 또한 그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발견하게 된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딤후4:5-8

선한 싸움을 모두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써 믿음을 지킨 자 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함선호 은퇴 장로(선교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에게 박수를 보낸 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이러한 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2:17



몽골 교도소에서도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5:32



ECC 몽골지부의 이 선교사와 가나 목사, 울란바 타르 주영광교회의 남스레 장로와 어유나 장로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교도소 사역은 이제 어느덧 7 년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익숙한 몽골 교회와 교회 리더들은 복음이 뿌려진 지 한 세대가 지나기 도 전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였고, 선교사들에게 교도소 사역의 필요 성을 먼저 제안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M 교도소는 범죄 경력 5범 이상의 최소 5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재소자들 400여명을 수감하는 곳 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매월 2회 방문하며 재소 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함께 예배를 드 리고 있습니다. 처음 M교도소를 방문했을 때에 는 섬뜩한 기운이 맴돌았지만 지난 6년간의 끊임 없는 중보기도와 예배로 인해 이제는 이웃 마을 을 방문하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 음에는 간식과 공연에만 관심을 보이던 재소자들 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제는 QT와 기도를 스스로 하며 다른 재소자들에 게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는 30여명이 모이는 믿 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공동체로 세워져 가 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함께 있는 주변 재소 자들과 심지어 교도관들에게까지 이들이 믿는 예 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르갈란트 메니저는 울란바타르 내 교도소 사역에 관심이 있는 5~6개 교회와 10여명의 개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조직하여 매월 그리고 분기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가정학교 및 성탄송년행사를 기획하여 교도관들의 매우 큰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2017년에는 재소자들을 위한 중독회복학교와 교도관 대상의 가정학교를 기획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믿지 않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울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D교도소에도 매월 1회 방문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계획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는 회개의 능력이 몽골의 교도소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내몰고 빛으로 이곳에 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芝安 010月1

저의 이름은 알탕후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으며 부모님과 형제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제 삶에는 어두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고 술과 담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곳,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성령님이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거짓말과 도둑질로 가족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탕후 형제와 함께

전에는 저의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 절망들이 가득했고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서 자신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었 지만, 제가 "주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제 자신을 맡기자 저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제 마음 속 깊은 어둠으로부 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를 찬양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가쁨으로 가득 칩니다.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아니라 이전의 범죄하고 어두운 알탕후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이 많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이며 그를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57713 010F71

저는 '재소자, 헝거르'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1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한 남자를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처이르의 425번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 교회의 성도들과 형제들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해주어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를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바침으로써 저의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죄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인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를 기도하게하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성장하게 해주셔서, 저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이해할 때까지 지난 4~5년 동안 험하고 먼 길을 거쳐 왔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포기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친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다시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혼하고 떠나갈 때, 지난 4-5년 간 같이 살았던 새어머니와 제가 같이 남았는데, 마약과 술, 돈, 다툼 때문에 새어머니와 크게 싸우다 죽인 것에 대해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가끔 주님을 의심하여 넘어지고, 귀찮아하고 멀리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녁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저와 함께 신앙을 가진 형제들인 바트바타르, 뭉흐자르갈, 에르덴바야르, 바트바야르, 아요시, 알탕후 등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저녁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재소자 형거르' 라고 소개했지만, 이제는 저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헝거르' 라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신실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몽골과 세상 모든 이들의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헝거르 형제와 재소자들

37

7至翌年 010年71



저의 이름은 자르갈란트 입니다. 저는 1965년 9월 10일에 투브 아이막(도) 알탕볼락군에 삼필이라는 가정에서 총 14명의 아이들 중에 7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7년 2살 때 미야타브 라는 사람에게 입양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극장예술대학교에서 연기자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있을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 22년간 술을 마셨습니다. 그 동안 한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은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재혼을 하고, 아들들이 6살과 3살이었을 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주님을 알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지 4년째 되던 해부터 8년 동안 다르트 433번 교도소에서 책임자로 일을 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ECC단체에서 교도소 사역을 맡아서 일하는 동안에 마인트 415번 교도소에 한 달에 두 번 가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교도관들 가정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쁨 있는 가정" 이라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40여명의 교도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난 후, 그곳 교도관들이 우리의 사역을 많이 지지하게 되는 변화를 보며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재소자들을 위한 중독회복학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 전에 개척된 재소자 교회인 "텡게를렉 에르추드(천국남성)" 교회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며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젊은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들 안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의 믿음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때 놀랍게도 저의 가정생활이 회복되고, 저의 큰 아들과작은 아들, 아내와 아내의 동생들도 교도소 사역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잠발수행 담임목사님이 교회의 성도들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415번 교도소와 433번 교도소 사역에 참여시키는 결정을 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몽골의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기쁨" 사역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제목

- 1.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M교도소 내, 재소자 예배공동체가 어떠한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공동체, 성령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 2. 주변 재소자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생명과 회개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 3. 이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짜르갈란트 메니저에게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 4. 교도관들이 거주하는 바잉솜 지역에 교도관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 미래 교도소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5.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이 적시 적소에 채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 재 정착기

또 다시 스리랑카

박영근 선교사 스리랑카

스리랑카로 돌아오기까지

저는 1999년 6월에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온누리국제학교와 온누리성경학교를 위해 13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 교육 전도사로 2년을 섬긴 후, 신대원 졸업과 동시에 훈련을 받고 바로 선교지에 와서 십 수년 간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온누리교회 목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본부에서 기회를 주셔서 부천온누리교회에서 2년, 호치민온누리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계속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도 불렀지만,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선교사로 다시 결단 한 이후, 주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그 동안 섬겨왔던 스리랑카 선교사로 다시 가기를원하신다는 사실과,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소외 받는 소수 종족인 타밀인들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 환경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경에 스리랑카로 다시 복귀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박영근, 추행란 선교사 부부 아래. 스리랑카 해턴지역의 홍차밭

스리랑카를 향해 새롭게 주신 주님의 마음

사실 스리랑카를 떠나 갈 때, 스리랑카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늘 미련이 남았던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가리라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함 때문이었는데, 선교사역을 해오던 어느 순간 그 긍휼함이 사라져 버렸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생각을 목회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부천과 호치민 온누리교회 목회를 통해 짧지만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하며 선교에 대한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를 첫 방문했을 때 주셨던 우리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3년간의 목회사역을 통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스리랑카로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와보니 얼마나 좋은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 미워했던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스리랑카에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여호와이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 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스리랑카로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하셔서 지난 26년 간 정부군과 반군 타밀군과의 내전으로 인해 고아와 과부가 많은 지역인 자프나지역(스리랑카 최북단)으 로 보내시는 줄 알고 그 곳을 방문하였으나, 자프나가 아닌 스리랑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홍차 재 배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1월 초, 해발 1200m 해턴(Hatton)지역 한 교회에서 해턴과 그 주변지역 목회자 4~50여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곳에서 고아와 과부사역을 지난 20년 동안 해오고 있던 현지 목회자 맥시(Maximus Mudal)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난 1 년간 맥시 목사 부부와 함께 귀한 동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긍휼사역 뿐 아니라, 스리랑카 사역 초기부터 사역해 왔던 온누리 BEE사역(온누리성경학교)이 제가 스리랑카를 떠 나 있는 4년 동안 중단이 되었기에, 다시 복귀하면서 해턴지역을 중심으로 BEE사역을 다시 활성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해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면서 영향력 있는 현지 목회자인 다 아난던(Dayanandan) 목사를 만나게 해 주셔서 지난 1년간 함께 아름다운 목회사역을 동역해오고 있 습니다. '다시 스리랑카로 가라.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을 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긍휼사역을 잘 감당해오고 있는 맥시 목사와 훌륭한 목회사역을 해 오고 있는 다 야난던 목사를 통해 협력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40

다시 스리랑카로 가라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다

해턴의 홍차밭







해턴지역의 홍차를 수확하는 모습

일대일양육자 과정 중인 성도들

긍휼사역과 말씀사역

긍휼 분야의 현지 사역자인 맥시 목사는 현지 NGO인, "Bethlehem Care"의 대표로 섬기면서, 해턴과 해턴 주변지역 100여개 교회의 Secretary 목사로 고아와 과부 뿐 아니라, 어려운 목회자들도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지난 20년간 해턴 주변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며 긍휼사역은 해 온맥시는 최근 재정적 후원의 어려움으로 긍휼사역을 중단해야 할 시점에 저를만나게 되어 긍휼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해하고있습니다.

말씀사역은 10년 전 120명의 성도에서 500여명으로 성장한 해턴 AOG 교회(담임 다야난단목사)에서 2016년 1년간 20여명의 목회자들에게 BEE과정의 7개의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강사 분들은 한국과 카타르에서 오셔서 가르쳐주셨고, 지난 1년 동안 배운 과목은 일대일제자양육,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육론, 전도론, 마가복음까지 BEE DPM(Diploma Practical Ministry) 과정을 거의 다 이수하였고, 3월 종합시험을 거쳐 5월에 DPM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지도자훈련과정(FTS)을 마치면 다시 현지목회자들과 리더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BEE세미나와는 별도로 저는 해턴 AOG교회 리더들 10명에게 일대일제자양육 16주 과정을 가르쳤고, 지금은 일대일을 배운 리더들이 동반자에게 제자양육을 하면서 12주 과정 <그리스도인의 생활> 공부를 매주하고 있는데, 일대일세미나와 16주 과정 일대일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통역을 하면서 큰 도전을 받은 담임 다야난더 목사가 AOG교회 전교인의 일대일제자양육화를 위해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사역을 통한 저의 꿈은 해턴을 비롯한 스리랑카전 지역에 QT와 일대일을 보급시키는 것입니다.





위. BEE사역을 동역하는 다야난던 목사 부부 아래. 일대일 제자양육 공부중인 학생들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42



열방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회복의 만남들

새해에 디모데전서 QT 말씀을 통해 말씀사역과 긍휼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낭독과 설교와 가르치 는 일에 전념하라"(FI전4:13, 우리말)는 말씀을 통해 매일 QT와 성경통독을 성실히 할 것과 매주 현지 교회에서 설교하기, 그리고 한국에서 오셔서 가르 치는 BEE말씀 세미나 외에 너는 부지런히 현지 목회자들에게 QT와 일대일 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take care of the widows, 딤전5:3)는 말씀을 통해 해턴 지역의 과부들과 장애우 그리고 소외 계층에게 <사랑의 쌀>나눔을 통해 매달 한 번씩 쌀과 2주치 양식을 전달하는 전달식에만 참석하지 말고, 매주 설교 후에 직접 그들 집을 심방하 여 그들이 사는 형편과 고충들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 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해 첫날, 현지교회에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그 후 첫 번째 과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 안내를 위해 그 집 아들(13세)이 큰 대로변까 지 나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의 이름을 물으니 '여호사빗'이 라 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이름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돋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십 수년 동안 스리랑카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여러 스리랑카 이름을 들어 보았지만, '여호 사밧'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 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부 집 을 방문하였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첫 딸은 고등학교 입학금(한화 40,000 원)을 내지 못해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매달 저희가 나누어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사랑의 쌀 사역





2017년 '사랑의 쌀' 사역의 첫번째 수혜자 할머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주는 <사랑의 쌀> 양식이 끊어져 3일째 온 가족이 계속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데, 아침에 중학교 3학년인 둘째 딸이 길을 걸어가다 너무 허기진 나머지 길거리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 딸이 4개월간심한 중병이 걸려 이웃집 가게 주인에게 큰 돈(한화 60만원)을 빌려 병을 치료하였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항해 매일같이 온갖 욕설을퍼 붓는 가게 주인으로 인해 중3 딸도 내일부터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날 방문으로 인해 지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4인 가족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둘째 딸의 병원비도 후원금으로 해결되었으며, 두 딸은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 첫날에 이뤄진 두 과부의 가정 방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의 가정 심방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날 그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스리랑카

떠나 갈 때에는 다시 돌아올지 몰랐던 이곳 스리랑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품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시 스리랑카에서 또 다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해턴지역과 스리랑카 온 땅에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시 스리랑카로 인도하셔서 큰 은혜를 경험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3



44









기도제목

- 1. BEE 말씀세미나 사역과 QT, 일대일 보급을 통해 스리랑카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겨나도록
- 2. 3,000명의 과부를 돌보는 것인 비전인 맥시목사 부부에게 건강의 축복과 경제적인 후원이 잘 채워지도록
- 3. 아내 추행란 선교사의 건강(만성피로, 숙면)과 두 자녀(주얼, 신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도록





"2016 MK Family day" 후기

MK가족들의 사랑의 잔치

김세라 선교사 전 MK담당



45

지난 2016년 12월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MK들의 가족이 일 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일년 사이 조금 더 의젓하게 쑥쑥 자라난 MK들과 부모 선교사님들, 그리고 MK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섬겨주신 중보자님들, 교사들, 스텝들 모두가함께 모였다. 두란노해외선교회의 MK들을 위해 지난 일 년간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함께하는 가족잔치와도 같은 시간을 가졌다.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과함께 그 동안의 삶과안부를 나누며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오픈닝으로는 한동글로벌 아이놀의 힙합댄스 "돌아온 탕자"로 드디어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맨 앞자리 로얄석에 앉은 MK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집중 하여 멋진 누나, 형아 들의 춤으로 시작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빠져들었다.

간증으로는, 학습진로 상담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은경 교수님의 눈물의 간증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MK교사,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Tim**





위. 간증하는 인도 MK 이삭이 아래. MK들을 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 간증은 인도MK인 이이삭이었다. MK로서 현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 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삭이의 귀한 나눔을 통해, MK들이 선교 현장 에서 감당해야하는 큰 몫이 있지만 큰 산,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 하여 잘 견디고 감당해내고 난후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 어 쓰이리라 믿고 다시 한 번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마지막 특별 순서로는 온누리교회 예꿈 뮤지컬 찬양팀의 <메시아>공연이었다.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TIM 본부장이신 도육환 목사님의 메 시지와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MK들을 축복하고 각 선교사님 가정들이 주님 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하였다.

MK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열방의 복음회를 위해 다함께 올려드리는 그기도를 통하여 우리 MK들이 그리스도인, 한국인, 국제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도록, 잘 준비되길 기도한다. '제 3세계 아이'라 불리는 우리 MK들이지만, '하늘의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주님이 우리 MK들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안정감이 되어주셔서, 외롭고 소외되어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길 기도한다. 주님이 우리 MK들에게 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꿈과 소망이 되어주시길 기도한다. 2016년의 마지막 MK행사를 정리하며, 2017년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중보자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봉사자 분들을 더 부르시고 세워주시길 기도한다. 다음에 있을 '2017 MK Family day'에서 고백되어질 감사를 미리 기대 해본다.

〈메시야〉 공연을 섬겨준 예꿈 뮤지컬찬양팀



본부 소식 1월-3월



FA



| FA11기 귀국



2월 | FA11기 사역보고회



2월 | FA11기 사역보고회



2-3월 | FA12기 합숙훈련





1-3월 | MK 기도모임



1-3월|한남동 기도모임

선교사 파송



1월 | 김성민, 한영순 선교사 파송



1월 | 유정태,젠드마 선교사 파송



2월 | 유누가, 박사라 선교사 파송기도



2월 | 조문숙 선교사 파송기도



3월 이호수아, 에스겔 선교사 파송기도



3월 | 정문옥 선교사 파송기도(KCOC)

세미나



2월 | **몽골전략회의**(국내)



2월 | 몽골전략회의(국내)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47

۲im





본부 소식





훈련

2월 | **중국전략회의**(국내)







2월 | 2017 상반기 단기선교사헌신예배

48

2017년 주요 일정



단기선교사훈련(TP) 30기(1/2-1/26)

장기 신임선교사 TST(1/24-2/2)

본부 전략회의(1/17-19)

FA 11기 사역 종료 디브리핑(2/6-9)

FA 12기 합숙훈련(2/10-3/3)

장기선교사훈련(OSOM) 27기(2/13-6/3)

터키 지역 전략회의(2/28-3/4)

몽골 지역 전략회의(4/27-4/30)

하반기 단기 신임선교사 TST(5/30-6/2)

단기선교사훈련(TP) 31기(6/19-7/15)

장기 신임선교사 2차 TST(6/21-7/7)

신임선교사 교회개척(CPM) 훈련(7/11-15)

OSOM 27기 신임선교사현장훈련(TFO)(7/17-9/22)

FT 선교훈련(7월중)

본국선교사재훈련(H2H) 8기(7/17-8/26)

FA 12기 사역종료 디브리핑(8/7-9)

25주년 미션캠프(8/10-12)

FA 13기 합숙훈련(8/10-9/1)

장기 신임 선교사 3차 TST(10/11-11/3)

25주년 미래 전략회의(9/24-27)

25주년 선교자료집 발간(9월중)

25주년 감사예배(9/27)

MK Family Day(12월중)

FT 선교훈련(12월중)



완도성광교회 이읍교회



경기 · 반석교회 비전교회 소양교회 수원영락교회 영원교회(원미구) 영원교회(소사구) 예수누리교회 예수향기교회 은광교회 의정부영락교회 일산함께하는교회 일산혜림교회 진세골온누리교회 충만한교회 풍동교회 풍성한교회 하림교회 희망의교회 그레이스선교교회 나눔아트센터 대군통상 서울 라이브교회 미아영문교회 서울성원교회 경북 소원의항구교회 승복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시와찬미교회 은평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중앙교회 하늘소리선교회 행복한주원교회 화평교회 49 AM(Asian Mission) 21세기푸른나무교회 열방교회 온누리소망교회 인천청지기교회 코스모스교회 충북 --- 부산 회남교회 부산부평교회 제8영도교회 대구 🚭 전북 ----정읍순복음교회 대구성원교회 전남 ·----계산교회 성전중앙교회



기도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 TIM 중보기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301호

후원계좌

선교사 후원: 하나은행 573-810000-53104 MK(선교사 자녀) 후원: 하나은행 573-910004-23004 예금주: 동서문화개발교류회

多学科学教学的印



재능기부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홍보, 소식지 | 기도지 발송, 행사도우미 기타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가능

다양한 영역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정보 및 지역연구 문서 홍보 업무 동원 및 훈련 재정 및 행정 MK 사역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1996@hotmail.com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Hirata 3-17-3 Ichikawa city Chiba prefecture, Japan Tel. 81-47-378-0313